

## 협업에 대하여

24기 이동진

와이빅타라는 학회에 처음 들어와 들었던 교육세션의 주제는 협업이었다. 사실 학회에 지원하기 전에도 여러 프로젝트와 컨퍼런스등을 준비하는데에 있어 여럿이 팀을 이뤄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으나, 첫 세션의 주제가 협업이라는 것은 학회가 협업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. 사실 학과의 특성상 대학에 와서 팀플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던 나는 협업의 중요성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절차와 갈등 발생시 해결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다. 세션의 내용 중 자주 sync하고 문제는 항상 쪼개는 프로젝트 팁이나 성공적인 팀의 요소등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. 사실 누군가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며 실제 부딪혀보면서 얻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하였다. 예전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피자 두 판의 법칙을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. 이와 동시에 언젠가 나도 한 팀을 꾸리게 되어 리더가 된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아직 바람직한 협업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확립하지 않았기에 이번 학회활동을 통해 이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려고 한다.